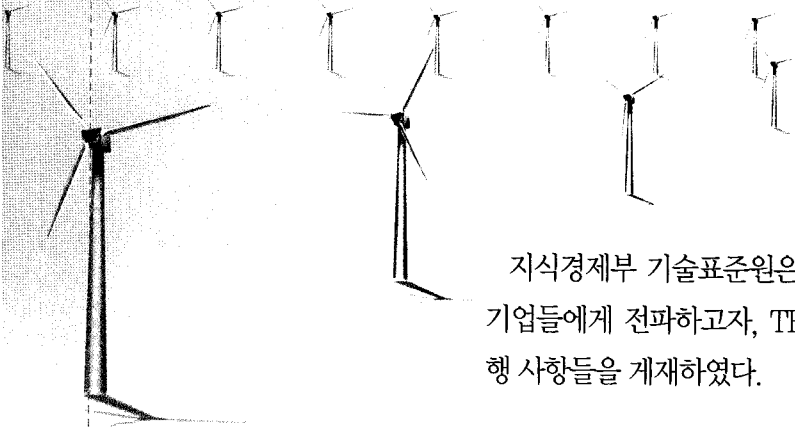


“에너지 효율 라벨링”

## 부착해야 멕시코 수출가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멕시코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제도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전파하고자, TBT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http://www.knowtbt.kr))에 관련 규정 및 이행 사항들을 게재하였다.

멕시코는 '11.9.11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라벨링 도안과 제품별 기술기준 및 사후관리방안(검사·검증) 없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제도를 시행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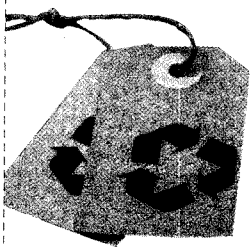
해당 제도는 판매시점에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부착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US\$100,0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하나의 제품군에만 많게는 400종의 모델을 소유한 제조사도 있어, 향후 과징금 또는 패널티(전량회수 등) 부과시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올해 11월까지의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나,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 단위로 제품표면과 포장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제품의 명칭·브랜드·모델유형·수입 또는 제조 여부 용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보호원(PROFECO)과 에너지절약국가위원회(CONUEE)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PROFECO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멕시코측이 특정된 기준치를 마련하고, 동 제도를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화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멕시코측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02-509-7255)